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¹, 류현숙^{2*}

¹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대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iyoung Kim¹, Hyunsook Ryu^{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G도와 C도 2개 대학 간호학과 2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r=.61, p<.001$), 비판적 사고성향($r=.6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r=.81, p<.0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beta=.46, p<.001$), 문제해결능력($\beta=.23, p<.001$), 성별($\beta=.13, p=.003$)로 46.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9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located in C and 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explained 40.6% of the variance i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mprov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Key Word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간호역량을 고루 갖춘 전인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근본적인 목적

을 두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고 있다[1].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명확히 기술하는 능력으로[2]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상대방과의 소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k Ryu(hsryu@daejin.ac.kr)

Received March 29,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3, 2022

Published May 28, 2022

통을 통해 성장해가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4]. 동시에 간호사로서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5]. 특히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의사소통역량은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기도 한다[5-7]. 아울러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게 한다[5]. 즉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의 내외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3,8] 문제해결능력이나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9,10].

또한 간호대학생의 필수역량이며 대학생활의 성공요인으로 강조되는 것이 문제해결능력이다.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고 그 중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안들을 찾아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는 능력으로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지적 능력이다[3,11,12]. 간호사에게 있어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업무수행의 영향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경우 간호업무수행을 잘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미래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13]. 간호는 간호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돌봄 행위를 수행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이자 수단으로 연구되어 왔다[8,14-16]. 즉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목하고 그것을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교육에서 중요시하는 학습성과 중 하나로[7] 사실과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반성적 사고이다[17].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개념이며, 문제해결과 의사결

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시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다[7,8,18,19]. 특히 간호대학생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현장에서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판단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조되고 있는 역량이다. 즉 문제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을 하게 하므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성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고[8,21] 효과적인 문제해결전략 수립을 위한 문제해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8],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전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간호현장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과 협력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효과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 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 자아존중감과 임상스트레스[16],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13,22], 대인관계문제[1], 문화적 역량[23], 긍정적사고와 대인관계[24], 비판적 사고성향[6],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7]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사소통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8,13],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와 C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정 프로그램[25]을 이용해 산출하였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와 예측변수 5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38명이었다. 총 289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과 Martin[2]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의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을 토대로 Hur[26]가 수정 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 [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였고[2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Chang, Lee와 Park[12]이 개발한 대학생 및 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원인분석, 문제명료화,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의 5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 .93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건전한 회의성,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객관성의 7개 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27] Cronbach's α 값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 .93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은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진입(enter)방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연구목적, 방법, 진행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익명성 보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연구철회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대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연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수 기술통계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87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문제명료화 3.94점, 원인분석 3.75점, 대안개발 3.70점, 계획 및 실행 3.70점, 수행평가 3.82점으로 문제명료화가 가장 높았고 대안개발과 계획 및 실행 영역이 가장 낮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지적열정 3.71점, 신중성 3.85점, 자신감 3.79점, 체계성 3.57점, 지적공정성 4.01점, 건전한 회의성 3.66점, 객관성 4.08점으로 객관성이 가장 높았고 체계성이 가장 낮았다.

Table 1.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289)

Variables	Mean±SD	Reference range
Communication Competence	3.87±0.49	2.33~5.00
Problem Solving Ability	3.76±0.42	2.11~5.00
Problem Specification	3.94±0.53	2.00~5.00
Cause Analysis	3.75±0.44	2.50~5.00
Alternative Development	3.70±0.51	1.70~5.00
Planning and Execution	3.70±0.57	2.00~5.00
Performance Assessment	3.82±0.49	2.10~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81±0.49	2.00~5.00
Intellectual Eagerness	3.71±0.75	1.20~5.00
Prudence	3.85±0.74	1.00~5.00
Self-Confidence	3.79±0.66	2.00~5.00

Variables	Mean±SD	Reference range
Systematicity	3.57±0.75	1.00~5.00
Intellectual Fairness	4.01±0.59	2.25~5.00
Healthy Skepticism	3.66±0.65	1.50~5.00
Objectivity	4.08±0.61	1.67~5.00

3.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t=2.87, p=.004$). 그러나 학년,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 성별,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1, p<.001$). 의사소통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5, p<.001$). 즉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r=.81,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았다.

Table 2.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Variables	Categories	N	%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1st	48	16.6	3.87±0.53	0.02 (.997)	3.80±0.51	0.85 (.470)	3.90±0.59	0.97 (.407)
	2nd	74	25.6	3.88±0.48		3.80±0.43		3.83±0.48	
	3rd	130	45.0	3.87±0.49		3.74±0.40		3.78±0.45	
	4th	37	12.8	3.89±0.48		3.69±0.40		3.73±0.51	
Gender	Male	73	25.3	3.73±0.50	2.87 (.004)	3.74±0.47	0.57 (.570)	3.75±0.53	1.08 (.283)
	Female	216	74.7	3.92±0.48		3.77±0.41		3.82±0.48	
Satisfaction with the Major	Unsatisfaction	58	20.1	3.95±0.43	1.08 (.341)	3.73±0.42	0.93 (.395)	3.79±0.47	0.20 (.822)
	Moderate	52	18.0	3.82±0.51		3.71±0.50		3.78±0.60	
	Satisfaction	179	61.9	3.87±0.50		3.79±0.40		3.82±0.46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289)

	Communication Competence $r(p)$	Problem Solving Ability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Communication Competence	1		
Problem Solving Ability	.61(<.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5(<.001)	.81(<.001)	1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성별과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변수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공차한계는 .35~.99로 .10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1~2.86로 10을 넘지 않아 연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 값은 2.2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beta = .46, p < .001$), 문제해결능력($\beta = .23, p < .001$) 및 성별($\beta = .13, p = .003$)이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여학생일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46.0%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서영 연구[28]에서 3.77점, 간호학과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순희와 정승은의 연구[7]에서 3.72점과 비슷한 결과로 대체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7]에서는 임상실습의 경험으로 의료진, 환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정계선, 김경아와 성지아[29]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일부 선행연구[30]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나 이순희와 정승은[7]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들[7,29,30]에서 간호대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도구의 차이, 교육환경의 차이 및 상대적으로 남학생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층화 표본추출이나 할당 표본추출 등의 자료수집방법을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문제명료화가 가장 높았고 대안개발과 계획 및 실행 영역이 낮았다. 간호학과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이 3.53점으로 중간정도로 측정되었고,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황영희와 박선정[13]의 연구에서는 3.52점으로 하부영역별로는 문제의 명료화와 수행평가가 높았고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이 가장 낮아 본 연구와 맥락이 같았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of the Subjects (N=289)

Variables	B	S. 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03	.19		5.35	<.001		
Gender(female)	.14	.05	.13	2.99	.003	.99	1.01
Problem Solving Ability	.27	.09	.23	3.19	.002	.35	2.8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5	.07	.46	6.18	<.001	.35	2.86

F=80.92($p < .001$), Adj. R²= .46, Durbin-Watson=2.24

즉 간호대학생은 문제해결능력의 대안개발, 계획 및 시행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체계적 사고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14,31]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방법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3.61점[7], 3.57점[32]으로 보고한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서는 객관성, 지적 공정성, 신중성, 자신감, 지적열정, 건전한 회의성, 체계성의 순으로 나타나 객관성 및 지적 공정성 가장 높았고 체계성과 신중성이 낮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3~4 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옥[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비교적 건전한 회의성과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단순암기 위주의 학습법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성향 등 고차원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 성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13,33]과 일치되지 않은 결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13,34]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져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20],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 그리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성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7]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의사소통능력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말하고 쓰는 능력으로 겉으로 드러나 정보의 해석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징이나 행동에 대한 암시를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3]. 즉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평하게 바라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표현하게 함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고[8] 의사소통능력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인 동시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해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여[13], 의사소통능력을 문제해결능력의 설명요인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도 문제해결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정보 해석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 소통하는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와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며[3,12],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현재와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지적, 창의적인 능력으로[3,12]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이 상황적 맥락 안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법의 적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이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학생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간호대학생의 성별이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남자 간호사들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 중에서 표현력이 가장 낮았으며[35],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이 있어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한 연구[36]를 통해 볼 때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여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대상자이므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이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때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접목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 표본의 크기 및 자료수집방법을 확장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법의 적용과 효과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ong. (2021).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117-127.
DOI : 10.22251/jlcci.2021.21.14.117
- [2] R. B. Rubin & M. M. Martin. (1994). Development of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1), 33-44.
DOI : 10.1080/08824099409359938
- [3] J. Won & G. Seong. (2020). Effects of a pre-college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4(4), 399-410.
DOI : 10.24231/rici.2020.24.4.399
- [4] H. Lee. (2017).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kook University, Seoul.
- [5]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2), 99-108.
DOI : 10.7739/jkafn.2018.25.2.99
- [6]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 Y. H. Jung. (2013).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06-616.
DOI : 10.5977/jkasne.2013.19.4.606
- [7] S. H. Lee & S. E. Chung. (2017).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40-349.
DOI : 10.5392/JKCA.2014.14.12.340
- [8] D. J. Kim & S. H. Yun. (2016).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 Communication*, 11(2), 167-177.
DOI : 10.15715/kjhcom.2016.11.2.167
- [9] S. A. Yang. (201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389-398.
DOI : 10.11111/jkana.2010.16.4.389
- [10] S. Joo & Y. Jeong. (2020).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reative leader competency of freshmen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 687-708.
DOI : 10.22251/jlcci.2020.20.10.687
- [11] H. Kahney. (1986). *Problem solving: A cognitive approach*. Philadelphia, PA: Open University Press.
- [12]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3] Y. H. Hwang & S. J. Park. (2020).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48-356.
DOI : 10.5977/jkasne.2020.26.4.348
- [14] M. Kim, H. A. Nam, & A. Y. Lee. (2019).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n clinical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877-889.
DOI : 10.22251/jlcci.2019.19.5.877
- [15] I. H. Cho & M. Park. (2017).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degree of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397-404.
DOI : 10.14257/ajmahs.2017.07.38
- [16] K. H. Kwak, S. O. Park, S. M. Oh, I. S. Seo, J. R. Lee, S. J. Park & B. J. Park.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3), 11 - 21.
- [17] S. Y.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286-296.
DOI : 10.5392/JKCA.2016.16.09.286
- [18] H. J. Lee, M. J. Kim, & S. K. Chu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ifelong core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3), 1535-1549.
- [19] N. C. Facione, P. A. Facione, & C. A. Sanchez. (1994).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 test manual*. Millbrae, C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 [20] J. H. Ha & H. J. Lee. (2020).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Nursing and Health Issues*, 25(2), 74-82.
DOI : 10.33527/nhi2020.25.2.74
- [21] M. Y.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 : 10.5762/KAIS.2016.17.6.609
- [22] Y. H. Jo. (2016).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294-302.
DOI : 10.12934/jkpmhn.2016.25.4.294
- [23] Y. Kim & S. Jang. (2020). Affecting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5), 399-417.
DOI : 10.22251/jlcci.2020.20.5.399
- [24] H. S. Ryu & B. S. Choi. (2021). Impact of posi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6), 1596 - 1605.
DOI : 10.12925/jkocs.2021.38.6.1596
- [2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10.3758/BRM.41.4.1149
- [26]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Communication Study*, 47(6), 380-408.

- [27]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8] S. Y. Kang. (2019).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181-198.
DOI : 10.22251/jlcci.2019.19.8.181
- [29] G. S. Jeong, K. A. Kim, & J. A. Seong. (2013).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413-422.
DOI : 10.5977/jkasne.2013.19.3.413
- [30] J. I. Kim. (2021).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18-128.
DOI : 10.5762/KAIS.2021.22.3.118
- [31] S. Y. Kwak, Y. S. Kim, K. J. Lee, & M. Y. Kim. (2017).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46-155.
DOI : 10.5977/jkasne.2017.23.2.146
- [32] S. K. Cha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 [33] S. H. Yang & I. O. S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612-622.
DOI : 10.5392/JKCA.2016.16.05.612
- [34] M. Y. Kim, E. H. Kang, & H. J. Park. (2021).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283-294.
DOI : 10.22251/jlcci.2021.21.10.283
- [35] E. J. Lim & Y. J. Yi. (2014). Comparis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313-321.
DOI : 10.11111/jkana.2014.20.3.313

- [36] S. M. Park & J. H. Kim. (2020). The influence of gender-friendly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57-365.
DOI : 10.5977/jkasne.2020.26.4.357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1997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 생애주기별 간호
· E-Mail: 89to92@jwu.ac.kr

류 현 숙(Hyunsook Ryu)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간호교육, 노인간호
· E-Mail: hsryu@daejin.ac.kr